

왜 나의 믿음은 효력이 없는가?

(사도행전 20:4-16)

사도행전 20장에는 초대교회 시절 보기 드문 주일 저녁 예배의 생생한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어떤 건물의 3층 다락방에 모여 떡을 떼는 성찬을 거행하며 바울의 강론을 경청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형제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좁은 장소에 수많은 인파가 가득 차면서 실내 온도는 높았고, 공간을 밝히기 위해 켜둔 등불의 연기가 천장을 채우며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열기와 연기 속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은 졸음을 참아가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상 유두고라는 이름은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고단한 하루를 마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찾아 온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졸고 있음을 알면서도 설교를 이어갔으나, 결국 유두고는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3층에서 추락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돌발 사태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피해 당사자의 평소 태도나 행실을 들먹이며 본인 탓으로 몰아세우는 정죄입니다. 둘째는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교회 진행부나 설교를 길게 이어간 설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책과 원망입니다. 셋째는 산소 부족이나 바람의 온도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합리화하려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쏟아내는 인간적인 비난과 변명은 공동체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전혀 다른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럽게 동요하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떠들지 말라며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을 엄히 금지했습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이나 법적 책임을 따져 묻지 않고, 즉시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 죽은 몸을 온 힘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간구하던 엘리야,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던 엘리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대책 회의 대신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고, 청년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삶의 돌발적인 비극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정작 중대한 사건 앞에서 무기력해지며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훈련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메달라 있으면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믿음은 효력을 잃고 시든 꽃처럼 힘없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태도가 곧 영적인 능력이 되며, 평소의 기도가 준비된 자만이 위기 속에서도 자력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표적 이후에 보여준 바울의 다음 행보 역시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죽은 청년을 살려낸 경이로운 사건을 두고 간증 집회를 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3층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 성찬의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뒤물리지 않았습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능력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울 일행은 앗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동역자들은 배를 이용했으나, 바울은 홀로 50에서 60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육로를 걸어가겠다고 결

단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가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직후 자신을 향해 쏟아질 대중의 추앙과 교만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피해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 역시 사람의 찬사로 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여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하는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경고하신 결박과 환난의 고난을 마주하기 위해 스스로를 영적으로 정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가혹한 박해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명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자기다운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머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 사라지면 음란해집니다. 안식이 결여되면 인간은 영육의 피로에 짓눌리게 됩니다. 영혼이 탈진할 때 인간의 본능은 불륜과 음란, 만성적인 불안과 분노, 무기력과 원망이라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피로를 풀려하며 결국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늘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실력을 키우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우리 믿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승리의 길입니다.